15-2 //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

**포스트모던/ 포스트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근대, 탈모던(모던계승x).

모던 : 한 시대의 변화, 혁신을 가져올 때 쓰는 말.

근대의 기점 : 르네상스 (신->인본주의)로 보기도 함. But 일반적으로 근대의 기점은 한국은 한일 병합. 서구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혁명으로 시민사회 형성.

근대의 기점을 왜 산업혁명 이후로 보는가? 🡪사회제도나 체제 굉장한 변화. 농업->공업,산업사회

신분제도 변화. 혈통중심->능력중심. 이 때 부르주아 등장(혈통에서는 귀족x but 공업과 상업 통해서 부를 축적) 근대 사회에 굉장한 큰 역할. 부르주아 작품 구입 : 교회 역사화 ->풍경화

공화주의 수립. 시민사회 민중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져 감.

자본주의 확장하면서 후유증 등장->빈부격차!🡪20c에 들어와 더 심해짐

혈통->능력 넘어가면서 능력있는 부르주아 같은 자들이 경제, 정치, 법 등 모든 것 장악. 상류층이 됨-->엘리트주의 심화!==>더 심화:리더(영웅)중심🡪고급성, 고급화, 고상함을 강조

대중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지만 대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됨.

모더니즘 미술 : 시민사회(시민 하나하나가 가치있는 존재)로 가면서 회화도 그동안 자연을 베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문학이나 성경이나 전설을 시각적으로 옮기는 역할 더 이상 만족x. 회화도 회화의 존재 가치를 주장. 미술가는 창조가가 되고, 미술은 창조품이 됨.

2) 마네 <올랭피아> 1865// 여자 창녀. 남자가 준 꽃인지 고양이가 무엇을 상징하든지.. 형태와 색채의 구성이고 조화이다. 그림 그 자체로써 존재가치 인정. 형식주의.

그 어떤 것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장르. 회화의 조건성인 평면성과 물질성을 향해 발전!!!! 🡪추상미술 등장.

순수성 : 회화는 회화 다워야 함. 미술만이 가진 조건, 형식이 중요

추상미술은 이 형식만 보여주는 것에 만족x. 이 형식 안에 자신들의 개념을 집어넣음.

몬드리안 : 수평과 수직의 완전한 평형으로써 균형있는 기하학적 질서로서 유토피아 주장. 모두가 절대적 보편적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을 원한다.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 사각형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꿈꿈.

모더니즘 미술 업적 : 추상미술 (보편성, 절대성 추구->유토피아 건설하고자 한다)

But 대중의 입장에선 어이 없다. 이런거 그려놓고 유토피아 꿈꾼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듦. 이해가 잘 안됨.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 : 리더중심. 모더니즘 미술도 작가가 엘리트가 돼서 작가가 관람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설명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모든 사회가 또 다른 귀족 사회와 다르게 또 다른 권위와 억압을 담고 있다. ->대중 받아들이기 힘듦.

모더니즘 사회 흔들리게 됨.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게 됨.

다시 말해, 모더니즘 시대는 미래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대. 그래서 유토피아의 꿈을 자꾸만 설득을 하려 함.

2차 대전 끝나면서 모더니즘 시대 흔들리게 됨. 창조성에서 차용으로 간다. 모더니즘에 지침.

**모더니즘 : 도시 중심, 강대국 중심, 리더 지도자 중요, 유일성, 순종, 고급성, 순수예술 인정, 의식**

**포스트모더니즘 : 지역성 강조, 제 3세계로 중심 이동, 대중이 중요, 다원성 추구, 혼성, (공예,디자인,영화 등 격상), 대중성, 무의식, 역사적 문맥 등 받아들임. 관람자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됨**

즉, 중심🡪주변부로 관심이 이동!!!! 철학에서는 해체주의.

차용 허락. 고급성->대중성, 유일성->다원성, 의식->무의식

4) 셰리 레빈 <샘 (뒤샹의 모작)> / 뒤샹 <샘> // 원본성의 신화가 무너졌다. 실재가 모조에 의해 대체된다.

모더니즘 – 원본성 강조.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작 가능.

관람자가 저자보다 훨씬 중요!

3) 피카소 <라스메니나스> 1957 / 벨라스케즈 <시녀들> 1656 // 벨라스케즈 작품 개작. 관람자의 해석은 자기 마음. 원본에서 복제했지만 원본과 상관없는 새로운 실재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시물라크르(Simulacre)의 시대이다.**

**플라톤 – 시물라크르(Simulacre**)를 모방으로 해석.

**장보드리야르** – 현실복제가 거듭되면 오히려 현실에서 멀어지며 의미적, 형식적 변질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현실이 된다.

**시물라크르는 이미 존쟇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실재(파생실재)이다.**

**시물라크르는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것**

형식보다는 내용 중요. 역사적 문맥 중요. 이야기가 부활.

5) 안젤름 키퍼 <최상의 존재> 1983 / 안젤름 키퍼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1988 //

몬드리안 <구성> 1921-25 과 비교.

몬드리안의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 질서가 딱 있고, 질서, 균형, 평형. 이 것은 모더니즘 시대가 요구. 이성 합리성

5)의 경우, 성령, 삼위일체. 고대신화 얘기.

독일의 이야기. 독일의 현대상, 고대 시대 등 얘기.. 포스트 모더니즘 ->구상 미술(구상의 화려한복귀) 의 등장!!!! 형식<내용 되면서 이야기 부활. 지역성 강조(독일 사람이니 독일 이야기). 상대성 강조. 개별성 강조(각자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

모더니즘 – 추상미술 등장. 강대국 중심으로 따르는.. 리더(엘리트)중심. 보편성. 절대성 추구. 리더가 우매한 대중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에게 유토피아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표현 중시. 신표현주의

6) 게오르그 바젤리츠 <아듀> 1982 / 게오르그 바젤리츠 <오렌지를 먹는 사람> //

바젤리츠 <오렌지를 먹는 사람>

특징 : 황폐한 풍경위에 유독 서 있는 듯한 거대하고 영웅적인 인물. 거꾸로 된 인물. 색채의 분열적 효과 – 추상적, 관습에 대한 도전.

바젤리츠 <아듀> 1982

외르크 임멘도르프 – 자기 모순에 빠진 현대 독일에 대해 번민.

7) 외르크 임멘도르프 <카페 독일> 1978 // 중앙 인물은 작가자신이다.

9) 시그마 폴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83 / 시그마 폴케 <품위있는 사기꾼> 1984 //

폴케 – 현대 독일의 복잡성, 1960년대에 벤데이 망점 사용.

·로이 리히텐스타인 – 벤데이 망점을 미화시켰음.

·폴케 – 벤 데이 망점을 인쇄의 불완전함, 싸구려의 대중매체 이미지를 손으로 복제.

폴케 – 사진을 추상적 모티브로 사용. 현실을 환각적으로 보이게 만듦.

포스트모더니즘은 싸구려. 무시받고 무시받았던 예술로 치면 추리소설 이와 같은 드라마 기법 등 순수미술 중심으로 인정.

미술도 그래서 고상하진 못했다. 질서가 없다. 이런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에선 인정.

질서, 균형, 평형 통해 유토피아 나아가자. 대중은 나를 따르라. 리더. 이성, 합리성.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 오지 않는다. 모더니즘시대에 불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넘어감.

불일치, 역설, 혼란, 싸구려 적인 이 모든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줌.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다. 모더니즘 미술이 유토피아니즘을 가지면서 질서 균형 평형 합리성 추구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불일치 역설 싸구려(키치, 통속적)적인 것을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여줌. 한 마디로 내 주장 많이 안한다.

10) 게르하르트 리히터 <크리스티와 볼피> 1964 / 게르하르트 리히터 <올랭피아> 1967 // 초점이 없는 사진 위에 붓터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유일성->복제 인정하면서 당시 가장 떠오른게 사진. 사진을 회화에 응용. 순종->혼성으로 가는.. 사진의 이용

**나는 특정한 의도도 없고, 어떤 노선도 추구하지 않고, 나는 내가 따라야 할 강령도 없다. 나는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을 좋아한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 특징**

이에 반해, 몬드리안 : 수평과 수직의 만남 등.. 이 세상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자기가 개념을 집어넣고 개념을 주장하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뜻에 따르게..

But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 불분명. 미술가는 창조가가 아니라 직업. 유일성->복제(시물라르크). 이성과 질서->혼란 무의식 무질서 이와 같은 모든 현실을 받아들인다.

11) 데이비드 살르 <무제> 1984 / 프란시스 피카비아 <비방> 1924 // 살르는 미국사람. 순종->혼성으로.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 차용. 프란시스가 했던 기법을 응용함.

혼란스럽다. 이성, 질서, 합리성->혼란을 증폭. 혼란 받아들임. 혼란을 보여줌. 그게 현실!

너무 노골적이다. 보기가 민망해지면서 이와 같은 노골적인 것은 불안감 폭로.

차용이란,

12) 데이비드 살르 <정오> 1984 / 카라바조 <성 바울의 개종> 1601 // 카라바조 그림 :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핍박하느냐.). 놀라서 갑자기 말에서 떨어짐. 바울 외의 동물 등에게 안들림. 나중에 예수 제자 됨.

카라바조의 작품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른것처럼 보여줌.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본래의 의미(원본의 의미)를 박탈하고 새로운 의미를 줌.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움 증폭.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현실을 보여줌.

13) 데이비드 살르 <제리코의 팔> 1985 / 미켈란젤로 <죽어가는 노예> 16세기 //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추구하면서 모더니즘하고 비슷.. 포스트모더니즘시대는 매너리즘(르네상스 다음..) 시대와 좀 비슷..

굉장히 유사한 형태는 차용. 본래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의미는 박탈. 오히려 혼란. 혼란은 불안하기 조차 함. 너무 여성의 성기를 드러내면서……

미술에서 남자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은 추하거나 그런게 아님. 여성의 성기는 보여주는 것은 얼마전까지 추하게.. 노골적이라서 혼란스러움. 혼란스러운 이 현실 보여줌.

14) 에릭 피슬 <비행소년> 1981 / 에릭 피슬 <생일> 1983

15) 에릭 피슬 <비행소년> 1981 //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들어옴. 벌거벗고 누워있는 여자는 엄마. 소년이 엄마의 가방에서 돈을 빼내감. 가정의 해체 느낌. 미국의 중산층의 무기력함. 부도덕. 그와 같은 것을 소재로 삼아 그림 그린 사람. 고발은 아니고,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모더니즘(미래, 발전 향해 필사적 노력) <-> 포스트모더니즘(전통에 눈 돌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들임.)

포스트모더니즘 : 차용, 병치, 절충이 양식적 특징.

16) 줄리앙 슈나벨 <Vita> 1983 // 이야기의 부활. 전통 다시 도입. 표현적 구상 보여줌. 구상회화.

십자가 책형의 형상을 차용해서 종교적 이야기 x. 현실적인 어떤 의미나.. 우리가 의미 찾아야 함.

깨어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은 차용한 것. 차용은 본래 원본의 의미 박탈해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 보여짐. 혼란, 착각.->시물라크르 : 복제가 원본을 대체한다.

모두가 화가되고 평등하고 싸구려 통속적 소외적 계층 존중받는가..? ->아니죠

사실 포스트모던미술도 백인 남성 중심.

17) 줄리앙 슈나벨 <지리공부> 1980 // 벨벳 위에 그린 그림. 거칠고 자극적 붓터치. 깨고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가 느껴짐. 어떤 형식 타파.

저속성, 통속성, 영웅성이 함께 보여진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음.

18) 제프 쿤스 <줄줄이 강아지> 1998 / 아트 로저스 <강아지> 1980 //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다 (제프 쿤스). 로저스의 사진을 통해. 차용을 통해 보여줌.

19) 일로나 스텔라 / 제프 쿤스

20) 제프 쿤스, 1988 // 미술도 상업 시스템 안에 있다. 팔리는 작품만이 가치 있다. 미술품도 상품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198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작품 300억원에 팜..

21) 쿤스, 풍선 강아지 //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1980년대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 선거 유세 – 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줌. 굉장한 자유. 이 여자와 결혼. 보다 통속적 저속적인 것을 제작해서 그 것을 고가에 팔면서 통속적 싸구려 적인 것이 하나의 중심 순수 고급 엘리트적인 것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줌. 포스트모던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22) 제프 쿤스 <속된 것을 받아들이다> 1988 / 뒤샹 <자전거 바퀴>

23) 제프 쿤스 <속된 것을 받아들이다> 1988 / 제프 쿤스 <마이클 잭슨과 버블> 1988

24) 제프 쿤스 <마이클 잭슨과 버블> 1988

25) 제프 쿤스 <후버 청소기> 1981-87

26) 제프 쿤스 <두 개의 공 50/50>

27) 제프 쿤스 <리본 묶은 달걀>

상업의 속성에 철저하게 맞추어 미술도 상업 시스템 내에 속해있다.